

태안 주민들의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이론 구성*

김 교 현 김 세 진[†] 권 선 중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난에 대해 태안 주민들이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토착심리학적 이론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활용했는데, 32명의 태안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두 차례의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도출된 이론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료 연구자가 다른 대상에게 실시한 개별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이론 분석을 적용하는 삼각검증법을 시도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4개의 범주와 36개의 하위범주, 68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했다. 모형에 포함된 현상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의 이행'과 '신체적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었으며, 인과적 조건은 '기름유출사고' 및 '초동대처의 실패'로 나타났다. 현상에 기여하는 맥락적 조건은 '상황 악화 요인'과 '맥락적 보호요인'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양상은 '자동적/수동적 대처'와 '조절된/능동적 대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적 대처 역량'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태안주민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거나 '재난 후 성장'을 보이며 이 시기를 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야기윤곽 전개를 통해 '재난 발생 전과 다른 또 하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적응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재난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추후 연구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주요어 : 태안 기름유출사고, 재난 적응, 토착심리학,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B00113). 연구과제명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영향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연구"임.

(면접과정에 참여하고 방대한 양의 심층면접 녹음자료를 글로 옮겨준 충남대 임상건강심리연구실 대학원생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김세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Tel: 042-821-6368, E-mail: sejinwal@hanmail.net

2007년 12월 7일 아침 7시경, 한국 서해안의 한 어촌사회가 10,900톤이라는 초유의 기름유출 재난지로 전 세계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다. 이 사고는 삼성중공업 예인선 '삼성 1호'가 풍랑 주의보가 발효된 기상 조건에서 해상을 운항하다가 예인강선이 절단되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발생했다. 수산물 채취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던 바다가 오염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으며, 태안은 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그 심각도가 크다는 점에서 재난이라 불리고, 그 영향이 오래 간다는 점에서 만성적 재난이라 할 수 있으며, 생태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환경재난이라 불린다. 정리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원인의 면에서는 기술재난에, 결과의 면에서는 환경재난에 해당한다(김교현, 2008).

사고 발생 후 약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서 태안 연안 바다는 주민들의 생활을 건 방제 활동과 1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 및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제 빛을 회복했다. 그러나 아직도 갯벌과 도서지역, 일부 해안가에서는 유출된 기름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원유 성분들이 사고 이전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더욱이 유류가 심하게 표착된 해안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하여 무척추동물은 물론 어류의 종수와 서식밀도가 감소하고 파래류의 이상번식, 성게류 대발생 등의 이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심원준, 2008).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라스카의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 기름유출사고(1989년)나 스페인의 프레스티지

(Prestige)호 기름유출사고(2002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균형이 파괴된 태안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해양생태계의 손상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학자 Picou(Steve Picou)와 동료들은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코르도바 지역 사례를 연구하면서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어촌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Picou, Gill, & Cohen, 1997; Picou, Marshall, & Gill, 2004). 현재 태안 역시 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해 어업활동, 서비스업 및 운수업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박재묵, 2008). 태안은 또한 생태유지비나 성금 등의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개인 간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 역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노진철, 2008; 박태순, 2008). 더욱이 법정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연대감이 파괴되고 지역 사회의 회복이 더디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Picou, Gill, & Cohen, 1997; Picou, Marshall, & Gill, 2004).

지역 사회 구성원인 주민들 또한 심리적 수준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약 2개월 시점에 PTSD에 해당하는 주민의 백분율이 70.6%에 달했으며, 전집의 2% 미만이 보이는 표준점수 이상($T > 7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불안(27.1%) 우울(36.6%) 자살 생각(9.5%) 등에서 상당했다(김교현, 권선중, 2008). 사고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그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PTSD 57.9%, 불안 19.1%, 우울 19.7%, 자살 생각 7.6% 등으로 여전히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적응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교헌, 권선중, 인쇄중).

국외에서 발생했던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현재 태안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환경, 심리적 고통 등을 종합한다면, 기름유출 사고가 남긴 심리사회적 피해는 만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적응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만성화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태안지역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태안주민이라는 주체들이 경험하는 ‘재난’ 현상을 그 실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인 참조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구문화권의 선행 연구들에서 그 틀을 가져온다면, 결국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그러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미국의 엑손 발데즈호와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의 예를 살펴보자.

보상금 지급의 면에서 한국은 국제유류오염 기금(이하 IOPC) 가입국으로서 IOPC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반면, 미국은 IOPC 가입국이 아니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엑손 발데즈호 선주회사에 직접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스페인은 IOPC를 상대로 담보제공 조건의 선지급을 요청하여 수락을 받아냈으며,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보상 활동을 추진하였고, 시민단체들 역시 전국 규모의 캠페인 활동을 벌여 보상이나

정책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사건 후 거의 2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직·간접적 가해회사에 적극적인 보상 명령을 할 수도 없고, 스페인처럼 IOPC를 상대로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이처럼 해안지역의 기름유출 사고들은 원인이나 결과 등의 측면에서 겹보기에 서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런 차이는 재난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가져온 재난의 특성과 주민들의 적응 과정을 맥락 친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토착심리학적 설명모형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활용한 근거이론 접근법을 활용했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학술적 개념과 이론은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현상에 기초해야 한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은 현실이 창조되고 있는 특정한 맥락의 독특성과 현실사회를 보는 적실한 눈이나 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한규석, 2006). 앞서 언급한 국가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저맥락(low context)’ 사회로 구분되는 서구문화와 달리, 한국은 인간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동적인 존재로 보는 ‘고맥락(high context)’ 사회로 볼 수 있다(Nisbett, 2004).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주변 맥락에 크게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태안은 지금도 여러 동족촌을 찾아볼 수 있는 집단주의적 색채가 강한 동양의 어촌이라는 사회문

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이는 개인주의적인 서구문화와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주로 진행된 환경재난에 대한 선행연구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태안의 재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즉, 한국 사람만큼 한국의 현상을 생생히 들여다보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이론적, 경험적 틀로 인해 오히려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김의철,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안주민들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이론을 도출하고자, 태안이라는 맥락에 직접 참여하여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라는 공유된 상징체를 분석함으로써 재난 현상과 과정, 결과의 실체를 설명하려 하였다.

근거이론의 필요성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위해 모은 심층면접 자료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연구방법이 바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이다. 근거이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질적 자료(주로 심층면접 자료)를 모은 후,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귀납적 방식의 연구법이다. 즉,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나 기존의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나 명확화의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그 동안 재난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경험적으로 다룬 연구가 국내에는 매우 부족하고, 기름유출사고라는 독특한 기술재난 또한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주도적 방식의 양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을 직접 경험한 태안주민들의 생생한 보고 자료에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태안이라는 지역과 지역민들이 갖는 사회/경제/문화적 독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토착심리학적 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당한 태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했다. 먼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면접원들이 2008년 9월 19일 소원면 파도리와 11월 21일 소원면 의항리, 태안읍 동문리와 남문리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은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다?” 등)으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사고관련 경험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 과정을 녹취했다.

한편, 태안 주민들 간에 자신과 다른 피해 노출 수준 또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조건을 지

표 1. 2008년 9월 및 11월에 실시한 개별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사례	성별	나이	직업	사례	성별	나이	직업
1	여	73	숙박업	10	여	54	숙박업
2	남	39	요식업	11	여	62	숙박업
3	남	55	농어업	12	남	51	요식업
4	남	55	농어업	13	여	78	소매업
5	여	53	숙박업	14	여	53	도매업
6	여	40	농어업	15	여	58	수렵업
7	여	56	농어업	16	남	63	농어업
8	남	48	공예업	17	남	47	농어업
9	여	75	농어업	18	여	68	소매업

닌 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1월 21일의 면접 참여자들에게는 면접을 끝낸 후 부가적으로 9월 19일 타 지역 연구 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요약해 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08년 9월과 11월에 실시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주민들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 2월 11일과 12일, 심리학 교수 1인과 대학원생 1인, 사회학 교수 1인이 태안군 이원면을 방문하여,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사회의 지도자급의 주민들을 만나 초점 집단면접을 실시했다(표 2, 사례 1~6). 이 외에도 이원면 부면장과 관할소재지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서는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했다(표 2, 사례 7, 8).

한편, 태안주민들의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설명이 본 연구자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동료연구자가 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심층면접(표 3 참조)의 축어록을 분석했다.

분석방법 및 절차¹⁾

심층면접 내용을 축어록으로 만들어, 그 내용을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법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개념화를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했다. 도출된 범주(개념)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 사이의 관계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확인하기 위해 줄거리, 즉 해당 연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했다. 자료 분석 과정은 임상건강심리 전공 심리학 박사 1인과 박사과정 1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여 합의점을 도출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심리학

1)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근거이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Strauss와 Corbin(1998)을 참고한 것이다.

표 2. 2009년 2월에 실시한 초점 집단면접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사례	성별	나이	직업	사례	성별	나이	직업
1	남	45	양식업	5	남	65	반농반어
2	남	52	양식업	6	남	59	반농반어
3	남	60	양식업	7	남	42	공무원
4	남	57	양식업	8	남	66	양식업

표 3. 동료연구자가 2008년 9월에 실시한 개별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사례	성별	나이	직업	사례	성별	나이	직업
1	남	57	양식업	4	남	50	요식업
2	남	54	양식업	5	여	48	요식업
3	남	52	목회	6	여	57	반농반어

교수 1인이 각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감수했다.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해체하여 면밀히 읽고 특정 현상(개념)을 찾아 이름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유사하거나 의미 있게 묶이는 개념들을 범주화 하며, 자료 내에 숨어 있는 특정 과정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와 과정’이 포함된 패러다임 모형으로 재통합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을 중심에 두고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intervening) 조건,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및 결과의 관계를 구성하는 범주분석이다. 현상이란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뜻한다.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발견한다. 인과적 조건이란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 환경 혹은 상황 등의 사건을 말한다. 맥락은 중심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전후관계나 상황들의 집합, 즉 개인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 개인은 이러한 맥락들이 조성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작용/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중재적 조건은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은 개인이 인과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취하는 전략적 행위나 일상적 행위를 뜻한다.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용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뜻한다.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발견한다. 인과적 조건이란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 환경 혹은 상황 등의 사건을 말한다. 맥락은 중심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전후관계나 상황들의 집합, 즉 개인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 개인은 이러한 맥락들이 조성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작용/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중재적 조건은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작용/상호작용은 개인이 인과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취하는 전략적 행위나 일상적 행위를 뜻한다.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을 통해 정교화 된 범주들을 통합하고 정련시키는 과정으로,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통합 과정이다. 선택코딩의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핵심단어들의 응축된 표현인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핵심범주를 밝히고 개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 기술하기, 도표 사용하기, 메모 정리, 검토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결 과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개방코딩과 축코딩

태안주민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68개의 개념과 36개의 하위범주 및 14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하여, 재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 요인으로 구성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표 4와 그림 1 참조).

인과적 조건 및 현상

현상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생계수단 파괴’와 ‘내부분열 발생’ ‘책임소재 및 보상과 관련된 갈등’ ‘생활패턴의 급격한 변화’ ‘불확실성으로 지쳐감’ ‘학습된 무력감’ ‘매스컴이나 연구자들에 대한 불신’ 등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진행됨’이라는 범주를 대표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체적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현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인과적 조건은 ‘기름유출사고’와 ‘초동대처 실패’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

현상에 기여하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어촌 사회의 경제적 특성’과 유가 폭등 등의 ‘국가적 경제위기’ ‘유관기관의 비효율적 대처’와 ‘보상의 한계’ ‘방제작업의 조기종결’ ‘악성루머나 집단 간 갈등 확산’ 등의 하위범주를 갖는 ‘상황 악화 요인’ 범주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외부의 효율적 지원’ 및 ‘자연의 정화 기능’ 등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맥락적 보호 요인’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상황 악화 요인’과 ‘맥락적 보호 요인’의 차원이 어떠한지에 따라 위에서 살펴본 현상의 수준이 상이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상황 악화 요인’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동시에 ‘맥락적 보호 요인’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는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진행되는 현상들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중재적 조건 및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의 경우,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현실의 조건을 바꾸고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인 ‘조절적/능동적 대처’와 문제해결에 본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나 습관적이거나 충동적이며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인 ‘자동적/수동적 대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적/수동적 대처’는 ‘정서표출적(혹은 충동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및 ‘의존적 대처행동’을 포함하며, 이는 1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체념적 대처행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한편, ‘조절적/능동적 대처’는 ‘정서적 지원 추구 대처행동’ ‘문제중심적/적극적 대처행동’을 포함하며, 이런 대처행동들

표 4. 근거이론 분석에서 나타난 태안주민들의 적응 과정의 개념 및 범주화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범주	
인과적 조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 앞 바다의 심각한 오염	기름유출사고	기름유출 재난발생	
	사고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산발적인 초기대응	초동대처 실패		
맥락적 조건	바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	어촌사회의 경제적 특성	상황 악화 요인	
	기존 산업의 침체(예, '재래시장' 등의 사양 추세)	국가적 경제위기		
	국가적 경제위기(예, 유가 폭등 등)	국가적 경제위기		
	정부나 기관의 미온적이거나 비본질적인 대처 (예, 보여주기 위한 연예인 초청 행사 등)	유관기관의 비효율적 대처		
	주먹구구식의 사후 행정	유관기관의 비효율적 대처		
	생계비 지급이나 방제작업 참여 등에서의 비형평성	보상의 한계		
	경제적 제로섬게임 상황	방제작업의 조기종결		
	해수욕장 개장,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방제작업 조기종결	방제작업의 조기종결		
	"서해바다 인근 농수산물은 다 위험하다."는 인식 선동하는 세력들의 등장 및 악성루머 마을간 오해 등 의사소통 문제	악성루머나 집단 간 갈등확산		
	대안적 일자리 창출(예, 공공근로, 취로사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외부의 효율적 지원		맥락적 보호요인
바다의 자정 능력	자연의 정화 기능			
현상	바다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제약 경제적 타격	재난으로 인한 생계수단 파괴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진행됨	
	피해 증빙서류 구비 여부에 따른 희비 격차 가해회사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찬반 여론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 손상(예, "착하게 살면 바보다.") 서로 예민해지고 대립하게 되는 갈등 가족 또는 이웃과의 불화 발생 생계유지비, 성금 등의 불로소득 분배에 관한 편견증적 태도	내부분열 발생		
	가해기업 등에 대한 분노 정부, 지자체에 대한 불신	책임소재 및 보상과 관련된 갈등		
	무기력한 일상(예, "차라리 빠르게 방제활동 할 때가 나왔다.")	생활패턴의 급격한 변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정확한 정보, 현명한 판단의 부재로 우왕좌왕함	불확실성으로 지쳐감		
	악쓰고 대처해봤자 해결된 것이 없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절망	학습된 무력감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하는 매스컴이나 연구자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	매스컴이나 연구자들에 대한 불신		
	두통, 감기, 면역력 저하, 골절 사고 등	신체적 건강 문제 발생		신체적 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갈파래 증가, 꽃게 등 어획량 감소, 수온 상승 등	생태계 악화		생태계에 미친 부정적 영향

표 4. 근거이론 분석에서 나타난 태안주민들의 적응 과정의 개념 및 범주화 (계속)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범주	
중재적 조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고 전 건강 수준 재난대응 시 사회적 역할 정보 수집능력 및 보유수준 사회적(가족) 지지자원 외부지원에 대한 수용성	위기대처 자원	개인적 대처 역량	
	감사성향(외부도움 등에 대한) 낙관성(회복 기대)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한 통달 경험 대인관계 기술 공동체적 윤리의식	개인적 성격 특성		
	음주 및 흡연 증가 기물파손 등의 직접적 분노표출	정서표출적 (충동적) 대처행동	자동적/ 수동적 대처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방제작업에 몰두 외부 원조에 의존	회피적 대처행동 의존적 대처행동		
	“늪은이어서 그냥 따라 간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체념	체념적 대처행동		
	작용/상호작용	자기노출을 통한 감정 정화	정서적 지원 추구 대처행동	조절적/ 능동적 대처
		정책보고회나 대책모임 등에 적극 참여 대 정부 혹은 기업 투쟁/소송에 참여	문제중심적/ 적극적 대처행동	
		일상 및 환경 회복에 주력	수용/전념 대처행동	
		무력감/무망감/절망감 경험 사회 및 현실에 대한 편집적인 태도 소원해진 이웃 및 가족 관계 수면/섭식 등 일상기능 이상 신체적 건강 손상(질병 발생)	만성적인 심리사회적 부적응 신체 건강의 손상	
지역 간, 업종 간 갈등 심화 지역공동화		지역사회 위기 심화		
결과	바다 및 환경의 소중함 인식 타인(자원봉사자)의 중요성 인식 이웃의 소중함 자각과 연대감 발달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 신념	재난 후 성장	
	재난 초동대처의 중요성 인식과 준비 자세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	지역사회 수준의 긍정적 변화	
	기능적인 지역산업 구조의 개발 가능성 모색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발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입 등 변화 시도가 나타남(예, 어머니 교실)	복지개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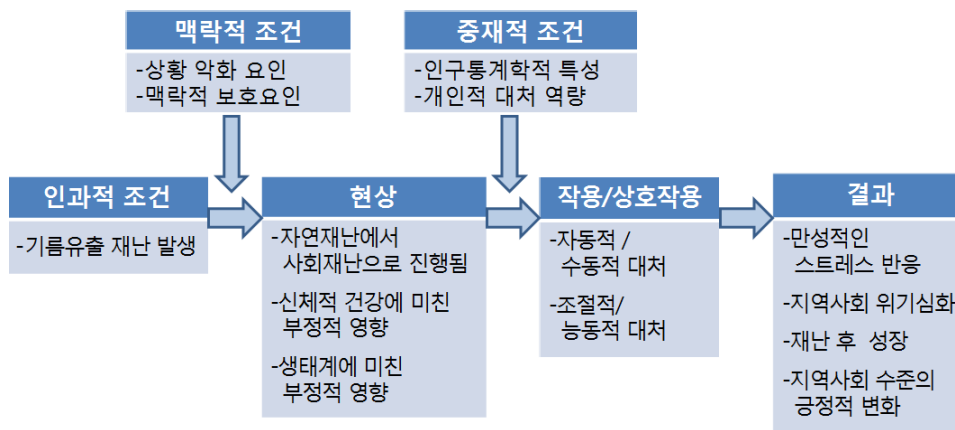


그림 1. 태안주민들의 재난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은 1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수용/전념 대처행동’으로 전환되었다.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적 대처 역량’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

결과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변화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로, 자동적/수동적 대처를 주로 보인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만성적인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나 ‘신체 건강의 손상’ 등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적/능동적 대처’를 사용한 주민들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 신념’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준비’를 포함한 ‘재난 후 성장’이라는 결과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공동화 현상과 같은 ‘지역사회 위기심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 ‘복지개념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선택코딩

이야기 전개 1

주민들은 기름유출 사고를 인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보면서, 인재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름유출 사고 자체가 본 재난의 핵심원인이기보다는 초동대처의 실패가 비극을 초래한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태안 주민들은 연안 생태계를 파괴한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일상생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경제적 타격은 1급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2, 3 및 4급지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도 심각하였다. 사고 전 주민들은 바다나 논, 밭 등의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삶의 터전에서 자신이 그 때까지 익혀온 생활의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며 상대적으로 넉넉한 경제적

살림을 꾸려왔다(예, “여긴 다른 시골보다 돈 벌이가 나은 곳이었죠. 사고 나기 전까지 여기 사람들은 매일같이 돈을 만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 직후의 경제활동은 방제작업이나 공공근로가 거의 전부였으며, 생계 유지비를 받아내기 위해 상호 치열하게 대립하는 낮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수준 주장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및 업종, 세대, 개인 간의 갈등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업종별로 피해대책위원회가 난립하게 되어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나 실질적인 보상 추진 활동들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양식장시설 자체가 다 철거됐는지, 또는 시설은 유지하되 채집이 금지됐는지, 아니면 채집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그 입장 차이와 갈등이 첨예했다. 또한 생계유지비 분배나 구호물자 배급 등에 대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비교하는 편집증적 태도가 심각하여, “착하게 살면 나만 바보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돌기도 했다. 피해에 대한 증빙서류를 쉽게 갖출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희비와 갈등, 가해회사 측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된 마을 간,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등은 사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들은 “6.25 때보다 서로가 더 사나워진 것 같다.”는 한 주민의 말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어촌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온 공동체의식이나 시민의식을 크게 흔들어놓는 역할을 했다.

태안 주민들은, 본 사태를 야기했으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직·간접적 가해기

업들(삼성,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사 및 현대 등)과 강경하고 인색한 입장의 IOPC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다. 이들의 횡포나 비적합성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및 불신이 높고, 생계유지비 등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분노 또한 상당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과 좌절감, 미래에 대한 무망감을 많이 경험하고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도 대체 모르겠다.”는 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진되었다. 사태에 대해 처음에는 방제작업에 사활을 걸면서, 동시에 농성이나 데모, 자살, 단식투쟁 등의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대처를 전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 보이는 현실과 오히려 거대한 가해기업과 미진한 태도의 정부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과 배신감이 상당하였다. “악쓰고 대처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없는 사람만 당한다.” “명청하고 순한 충청도여서 당한다.”라는 식의 무력감이 팽배해 있었다.

주민들은 본 재난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나 아니면 너’, ‘우리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강해진 듯하다. 여기에는 태안 주민들 상호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드는 연구자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태안주민 숫자보다 연구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별로 신뢰 안 해요. 뭘 조사 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식의 외부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심적 고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건강 문제들을 겪었다고 말한다(예, “지금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초반에는 감기, 두통, 눈 침침함, 기력 저하 등 건강상태가 많이 심각했다.” “방제작업 하면서 다치고 건강이 안 좋아진 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갈파래가 나오고 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 확인해보면 바다 밑은 다 썩었다고 한다.” “꽃게가 안 잡힌다.”는 등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었다.

기름유출 사고가 가져온 재난에 대해 태안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악화 요인들을 보고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바다에 의존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순간 태안군 전체의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의 비효율적인 대처(예, 해수욕장이나 시내 위주의 연례인 초청 행사들, 주먹구구식의 사후 행정)나 해수욕장 개장 준비나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방제작업의 조기종결 등을 사태 악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예, “사람들 손 안 닿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아직도 기름이 새카맣습니다. 그걸 해수욕장 개장해야 한다고 급하게 방제작업을 마무리 선언한 겁니다.”). 주민들은 또한 대중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성급한 부정적인 보도와 “서해바다 인근 농수산물은 다 위험하다.”는 등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악성루머(예, “○○마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삼성을 이용해서 사고를 냈다고 한다.”)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고, 이러한 위기를 이용하여 정치나 경제 활동을 하려는 세력 집단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주민들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다(예, “이

기회에 표 얻어서 조력발전소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이 생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맨손 어업 신고하면 돈 많이 얻게 해준다고 선동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응해주는 사람들도 문제다.”). 또 다른 상황 악화 요인으로 유가 폭등이나 경기 침체 등의 시대적 상황이 재난의 피해를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안주민과 지역사회, 국민들과 정부는 이번 재난에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기름으로 뒤덮인 모래사장 과 돌을 닦고 또 닦았으며, 국민들은 자원봉사나 모금활동으로 태안의 아픔에 동참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상금 등을 지원하며 재난의 타격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태안의 모태인 바다도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보호 요인들이 기름유출사고에서 태안주민들을 버티어내게 도와주어 재난의 ‘현상’ 수준을 조절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안주민들은 개인적인 조건이나 역량에 따라 재난에 임하는 태도가 상이했다. 즉, 연령이나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재난에 대한 대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청장년층의 남성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적인 대처를 보였으며, 기름유출 사고 이전에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주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조손가정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주민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이장이나 새마을 마을지도자, 대책위, 어촌계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위기대처 역량이

높은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인적 성격 특성이 중요한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결과에서, 왜 어떤 주민은 ‘사회 및 현실에 대한 편집적인 태도’ 등을 포함한 ‘만성적인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나아가고, 어떤 주민은 ‘자연과 사람에 대한 긍정적 신념’ 등을 포함한 ‘재난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작용/상호작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외부도움(예, 자원봉사나 구호물품, 심리적 지지 등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와 낙관성, 통달경험, 대인관계 기술, 공동체적 윤리의식 등의 ‘개인적 성격 특성’이 양호한 주민은 보다 조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태안주민들이 “기름유출사고라는 재난에 대해 어떠한 작용/상호작용(혹은 대처를) 하였는가?”를 보다 전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피기 위해 재난 적응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 전개의 나머지는 과정 분석 후에 지속하도록 한다.

과정 분석: 태안 주민들의 재난 적응 과정의 시계열적 분석

재난 초기 단계에서의 작용/상호작용

태안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대부분 두 손 놓고 무력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표 4와 그림 1을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개인적 역량 특성에 따라 태안주민들이 서로 상이한 작용/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재난 초기의 작용/상호작용, 즉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살펴보자. 남성 중 청장년층과 노년층 모두, 위기대처능력과 개인적 특성, 즉 개인적 역량이 풍부한 경우 재난 사

건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절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보였다. 예를 들어, 어떤 주민들은 정책보고회나 대책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이 돌아가는 정보를 파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대정부 투쟁이나 소송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마을의 지도자들이나 리더십, 문제의식이 탁월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과 진척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성 주민들 중 젊고 개인적 역량이 풍부한 주민들도 높은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기름유출 사고에 대처했다. 그러나 가부장적 색채가 강한 태안 사회에서, 여성들이 앞장서서 정책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대책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주민들이 보이는 ‘문제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주변의 원조를 바라는 의존적인 태도나 체념/회피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본래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면 재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었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홀로 고립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 고통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 지지하는 ‘정서적 지원 추구 대처행동’을 보였다(예, “혼자는 못 견뎌내죠. 방제작업하면서 서로 얼굴 보고 위로하고.” “전보다 삭막해졌지만, 옆집과 서로 터놓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며 답답한 맘 달랜다.”). 노년층의 여성 주민들 중 일부는 “6.25, 보릿고개도 지냈는데, 별 다른 수 있습니까? 살아왔던 방법대로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걸 기대해서 뭘 합니까?”라는 식으로, 현실을 수용하고 본인이 할 만한 일들을

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수용/전념 대처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주민들 중 위기대처 역량이 부족한 주민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직시하며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불평만을 늘어놓거나, 별다른 대처 노력 없이 외부의 원조나 사고 보상을 기다리는 ‘의존적인 대처행동’, 또는 ‘다른 생각은 하기 싫어서’ ‘달리 할 게 없어서’ 방제작업 활동에 몰두하는 등의 주어진 일에만 몰두하는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 또 “나는 늙은이어서 그냥 따라간다.” “이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라는 식의 수동적이거나 ‘체념적 대처행동’도 관찰되었다. 젊은 남성층에서는 분노나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풀이를 하거나, 술·담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서표출적(충동적) 대처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작용/상호작용

재난 초기 단계에서 많은 주민들은 닦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적극적이며 일부는 투쟁적이기도 한 대처행동들을 보이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조절적/능동적인 대처’).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회피적으로 대처했던 다른 주민들보다 더 많은 좌절감과 분노감, 절망감, 무력감 등을 겪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반추와 고민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예, “내가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난생 처음 그런 욕들을 먹어보고, 이제 지친 거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대책위 일은 그만 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에서 점차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나 실현을 추구해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동적이거나 의존적, 회피적으로 대처했던 주민들보다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 즉, 재난 초기 단계에서 ‘문제중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정서적 지원추구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 주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용/전념적인 대처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현실의 한계들을 직시하며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비록 어떠한 성과들이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를 수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격렬하거나 미묘한 갈등들을 수용하며 버티어내고, 서로의 고통을 공유한 주민들은 “나 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일상으로의 복귀와 안정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 초기 단계에서,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대처’를 보였던 주민들은, ‘조절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보인 주민들이 현실을 수용하고 전념하는 것에 비하여,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자신에게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는 ‘체념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선택코딩(계속)

이야기 전개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안주민들은

한 해 동안 기름유출사고라는 재난을 겪어내며 다양하고 복잡한 적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주민들의 적응 결과를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관련 성장(또는 ‘재난 후 성장’)의 축으로 나누어 현재 시점에서의 적응 결과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적응 결과들을 살펴보려 한다.

주민들의 적응 결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예로, 어떤 주민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무력감, 무망감, 또는 절망감 등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거나 사회 및 현실에 대한 편집적인 태도가 심해진 것을 보고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갈등까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를 겪는 등 관계에서의 소원함도 나타났다. 또한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생체리듬이 깨어졌거나 면역력 약화, 질병 발생 등 신체 건강의 유의미한 손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작용/상호작용 중 ‘자동적/수동적 대처’를 보였던 주민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태안주민들은 본 재난으로 인해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나 성장인 ‘스트레스 관련 성장(또는 ‘재난 후 성장’)도 보고하고 있었다. 태안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수고를 경험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살았다.” “한국 사람들이 뭉치면 대단하다.”라는 등의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등 ‘선한 이웃’의 힘과 그 파급효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웃의 소중함을 새로 깨닫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더 공고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기름유출사고 이전에는 바다나 주변 생태계 등의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얼

마나 소중하고 곁에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다는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더불어 예전부터 우려하고 있었던 해사 채취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도 증가했다. 또한 평소 유조선의 이동경로에 인접해있으면서도 안전의식이나 재난대처 준비 등이 미흡했던 점을 주민들 자신과 지자체가 인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초동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적응 결과

지역사회 수준의 적응 결과 중 우려되는 측면은 집단이나 지역 간의 이기적인 태도가 악화되어 공동체의식이나 시민의식에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삼각기법을 적용하여 4급지 주민들에게 1급지 주민들의 심층면접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장면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몇몇 4급지 주민들은 “그 쪽(1급지) 사람들이 고생이 제일 심하다. 그럴 만도 하다.”라며 1급지 주민들의 토로에 공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은 “너무 이기적이다. 기름사고로 태안 전체가 다 힘들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감을 표현하였다. 집단이나 지역 간의 이기적 태도는 이번 기름유출사고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등 지역사회의 매우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에도 영향을 미쳐 현명하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안 지역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태안은 오랜 세대에 걸쳐 양식업과 맨손 어업

등의 관행업을 유지해왔다. 오랜 전통의 관행업을 복잡한 현실에 맞게 법적 허가제로 전환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인식 전환이나 제도 시행은 불가능해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식업 등의 허가제 필요성이 단시간 내에 널리 인식될 수 있었으며, 조속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바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태안의 경제 구도를 차차 기능적인 지역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안 어촌사회에서 무시되어 왔던 여성의 인권을 재고하게 되는 변화도 나타났다. 기름 유출사고 이후, 남성들은 모임을 자주 갖고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여성들은 “여자들이 모이면 마을이 시끄럽다. 분란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소통의 경로를 차단당하고, '태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억울함을 경험했으나, 의항리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부장적인 지역사회 분위기에서 억압 받던 중년, 노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교실' '한글 배우기' '이야기 풀어내기' 모임 등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비교적 높았다.

핵심범주

지금까지 기술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패러다임 모형의 범주 간 관계가 보다 분명해졌다. 이런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 태안주민들이 경험하는 핵심 범주를 '재난 후의 위기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적응과정'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주민들은 기름유

출사고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의 보상이나 복구과정에서 주민 상호간 적지 않은 갈등과 불신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의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다. 기름유출사고라는 재난은 주민들 개개인과 태안이라는 지역사회 체계(system)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으며 상당 기간 개인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재 태안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체계를 형성해 가는, '재난 발생 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적 적응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태안주민들이 경험하게 된 고통과 도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태안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토착문화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서 소개한 다양한 개념과 구조, 이야기 흐름(과정) 등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가설이나 예언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차 연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안주민들의 사고 후 1여 년 동안의 경험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식 보고를 통해서 구성해 본 근거이론 모형은 Aldwin(2007)의 상호교섭적 스트레스 이론과 잘 부합된다. 그림 1의 재난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살펴보면, '인과적 조건'에 해당하는 기름유출사건의 발생은 재난이나 외상적 스트레스 자극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며, 재난은 '맥락적 조

건'이라는 보호나 악화 요인에 의해 후속하는 스트레스 자극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다양한 대처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대처자원이나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모형의 끝에 있는 '결과'는 특정 시점의 대처 결과에 해당되며, 이는 다시 다음 시점의 스트레스 자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토착 이론적 모형의 구성 외에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안점을 찾았다. 먼저, 개인적 효능감 외에 '집단 효능감'이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이나 동종 업종의 집합체 등이 힘을 합해 당면 과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개인의 대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태안군이 집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의 농어촌이라는 특성 외에도, 이번 사고의 수습과정이 집단 간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과거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른 가정을 해보는 사고에 해당하는 '사후가정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사후가정 사고는 현재보다 더 나쁜 가능성을 상정해서 안심과 위안을 얻는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예,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만한 게 다행이지.")와 과거의 선택이나 행동을 제대로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도록 만드는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예, "사고 초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로 나뉜다. 하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현실을 수용하게 만들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희망

의 싹을 틔우고, 상향적 사후가정 사고는 장차 맞이하게 될 유사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더 주의하고 분발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 시점에 걸쳐 많은 선택과 결정이 필요했던 이번 사고의 대처 과정을 고려하면, 태안주민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은 사후가정 사고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주민들이 면접 과정에서 응답하는 이야기의 내용에 잘 반영되고 있었다. 주민들과의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후가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후가정 사고가 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타인이나 타 기관이 과거에 실제와 다르게 행동했었다면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사고가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 자신에 관한 사후가정 사고의 역할과는 달리, 타인에 관한 사후가정 사고는 '감사'와 '원망이나 분노'의 정서경험과 관련성이 높았다. 타인에 과거에 실제와 다르게 행동해서 지금의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는 원망이나 분노의 정서경험이 많은데 반해, 타인에 과거에 다르게 행동해서 지금의 결과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감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차 연구를 통해 타인이나 기관의 행동에 대한 사후가정 사고의 역할을 탐색해 볼만하다.

집단 효능감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사후가정 사고 외에도, 전통적으로 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졌던 '내외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와 사고와 문제에 대한 '원인 귀인(causal attribution)'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신뢰'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해볼 만하다.

본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

고가 태안군과 주민들에게 가져다 준 명과 암을 모두 조명하고자 하였다. 태안군과 주민들은 2007년 12월 7일의 기름유출사고를 기점으로 하여,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태안군은 이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한반도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발생지라는 오명과 낙후된 지역사회 경제 문제, 집단이기주의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태안주민들은 직업의 상실, 경제적 곤란, 심리사회적 갈등, 이웃과의 다툼, 자살 시도, 환경오염 등과 같은 중요한 생활사건과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의 골칫거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태안군은 이번 사고로 인해 바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단순한 경제구조를 다 기능적인 개별 지역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할 수 있었고, 양식업 등의 법적 허가제 등과 같은 새로운 관리 체제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머니 교실’ ‘한글 배우기’ ‘이야기 풀어내기’ 등의 건설적인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이웃들에 대한 감사와 연민,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초동 대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본 연구자들은 종단적 접근을 통해 재난 관련 스트레스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되는지, 어떤 변수들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적응과정’에 대한 상황 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교헌 (2008). 기술/환경 재난과 심리적 삶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
- 김교헌, 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12, 83-107.
- 김교헌, 권선중 (인쇄중). 태안 주민들의 재난 후 스트레스 반응: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ECO, 13.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1-24.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전문가 관점에 대한 근거이론 방법론적 접근.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 50-69.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ECO, 12, 7-42.
- 박태순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 151-174.
- 심원준 (2008). 해양유류오염사고 극복과 재인식. 태안국제환경포럼.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그 후 1년 -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극복과정과 향후 과제 자료집. 50-52.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태안 개미목마

- 을. 서울: 대원사.
- 한규석 (2006). 한국인의 문화심리학이 던지는 도전: 심리학에서 토착심리학의 가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 ~17.
- Aldwin, C. M. (2007).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Nisbett, R. E. (2004).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 (최인철 역). 경기도: 김영사. (원전은 2003년에 출판).
- Picou, J. S., Gill, D. A., & Cohen, M. J. (1997). The Exxon Valdez disaster: Readings on a modern social problem. Dubuque, IA: Kendall-Hunt.
- Picou, J. S., Marshall, B. K., & Gill, D. A.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 1448-8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London: Sage.
- 1차원고접수 : 2009. 4. 21.
수정원고접수 : 2009. 5. 19.
최종게재결정 : 2009. 5. 29.

An Indigenous Psychological Theory on the Adjustment Processes to the Disaster of Taeon Residents

Kyo-Heon Kim

Se-jin Kim

Sun-Jung Kwon

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nerate an indigenous psychological theory which explains how people in Taeon cope with the disaster caused by the oil spill from Hebei Spirit. Based on a grounded theory, personal in-depth interviews with 32 people in Taeon and two focus group interviews were analyzed. Also,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derived theory, this research adopted a triangulation methodology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to personal in-depth interviews that another colleague researcher carried out to different people. As a result, 14 categories, 36 subcategories and 68 concepts were derived to compose a paradigm model. The phenomena in the model comprise 'change from natural disasters to social ones', 'negative effect on physical health' and 'negative effect on an ecosystem'. Causal conditions are 'oil spill' and 'failure to take quick copies in the early stage'. Contextual conditions that contribute to phenomena are 'causes that aggravate situations' and 'contextual protection factors'.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re classified as 'automatic/passive copies' and 'controlled/active copies'. Intervening conditions that influence action strategies a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ability to deal with the disaster'. Consequently, Taeon residents experience 'chronic stress' or show 'growth after the disaster'. Finally,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action strategies as time goes on, coding for process was performed. By developing the storyline of phenomena, a core category of 'a process of adjustment to returning to daily lives, which are different from before the disaster' was induced.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by relating to the intervention i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problems and further researches.

Key words : oil spill in Taeon, Adjustment to the Disaster, indigenous psychology, grounded theory